

# ‘시민중심 지역에너지전환’ 약속

## 6·13 지방선거 후보 184명 매니페스토 실천 발표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공약안에 동의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모여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에 나섰다. 정책공약안은 시민 중심의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중당, 우리미래다.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는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공약에 동의하는 후보 발표와 매니페스토 서약식이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에너지 전환 약속에 나서는 후보는 총 184명이다. 서약식을 주최한 ‘지역에너지 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6월 2일까지 2차로 후보 서약을 받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서약식을 주최한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지난달 출범된 단체로, 에너지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구성한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와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도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등이 모여 만들었다. 이들이 내세운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7대 분야 20대 정책과제에는 크게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교통량 저감과 녹색교통의 확대 ▲녹색일자리 창출 ▲에너지복지 확대 ▲에너지전환 교육지원 등이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 이번 지역에너지전환 약속후보로 나선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박

###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실천 지역에너지전환 약속 후보 발표 기자회견

2018. 5. 16. 11:00~12:00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 에너지전환정책을 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공약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한 각 당 후보와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원순, 안철수, 김종민, 김진숙, 신지에, 우인철), 경기도지사 후보(이재명, 홍성규, 이홍우), 경남도지사 김경수 후보, 충북도지사 이시종 후보, 충남도지사 양승조 후보, 제주도지사 고은영 후보, 인천시장 박남후 후보, 대전시장 허태정 후보, 세종시장 이춘희 후보, 부산시 박주민 후보, 광주시 윤민호 후보, 울산시 김창현 후보 등 2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24명과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를 포함해 184명의 후보가 지역에너지전환 약속후보로 나섰다.

이날 공약동의에 나선 184명 중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홍번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

워크 공동대표는 “모든 당에 연락을 해 지역 에너지 전환 공약을 전달하고 후보들의 참여를 물었다”며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협의회와 소통이 있었지만 당 내 사정상 후보가 모두 정해지지 않아 추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공약에 동의한 후보들이 당선 후에도 공약을 잘 실천하는지, 공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후보 검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교육과 에너지전환 우수공약 경진대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예지 기자 kimyj@

## 부산시 미니태양광 보급 전기공사 업체 3곳 선정

### 효한전기·천호전력·한국나이스기술단 등...보조금 51~61만원 지원

부산시는 940여가구 미니태양광(250~300W)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공사 업체 3곳을 선정, 발표했다.

총 예산 5억 3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부산지역 전기공사업체로 효한전기(주)(대표 홍순선), 천호전력(주)(대표 김동영), (주)한국나이스기술단(대표 최형식) 등이다.

효한전기는 마이크로발전소와 렉스코 모듈을 사용하며 천호전력은 S-Energy사, 한국나이스기술단은 한화큐셀코리아의 모듈을 사용해 시공할 예정이다.

미니태양광발전설비는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장치로 가구당 전기요금 3만~6만원이 나오는 경우 260W발전설비 기준으로 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부산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51만

~61만원 규모로 설비용량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개별단위 190여 가구, 단체지원 750여 가구이며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참여기업과 발전설비를 선택 후 지원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업체별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70만~89만원에 공급하며, 시 보조금 지원 시 가구당 실 부담금은 9만~28만원이 된다.

이번에 신청한 전기공사업체는 총 4곳으로 지역제한으로 탈락한 충남 업체를 제외하고 부산업체는 모두 선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기공사업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 단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기로 바람직한 전기 소비와 생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현 기자 mahler@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확대

### 올해 80억 투입 주택·건물 총 1850개소 13MW 규모 보급

서울시는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올해 80억원을 지원, 주택 750개소, 건물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주택·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급수 전환으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여 여유 공간이 생긴 주택이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지역에 태양광 설치

가능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주택형 태양광 3kW를 설치할 때 월 288kWh의 전기를 생산, 매달 5만 285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올해 주택형(3kW 이하)과 건물형(3kW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지원하는 보

조금은 kW당 60만원으로, 시가 단독 사업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공단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돼 하반기에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시는 17개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했다. 아울러,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치 신청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 국내외 방사선 전문가 ‘한자리에’

### 원자력의학원, WHO와 ‘방사선비상진료 국제 워크숍’

전 세계 방사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김미숙)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프래지던트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방사선비상진료 분야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지난해 8월 세계보건기구 방사선비상 의료준비대응 및 지원네트워크(WHO-REMPAN; Radiation Emergency Medical Preparedness and Assistance Network)로부터 ‘방사선 비상 대비 및 대응’ 분야 협력센터

(Collaborating Centre)로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적 협력행사이다.

WHO-REMPAN은 WHO 산하 기구로 1987년 설립됐으며, 방사선비상진료 분야에서 2017년 기준 10개국에서 15개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와 23개국에서 56개 연락기관(Liaison Institute)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WHO-REMPAN을 주축으로 세계 12개국 방사선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방사선 피폭에 따른 내부오염의 기본 개념과 모니터링, 평가, 내부오염의 의학적 관리 등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내부 오염의 사고사례도 공유한다.

주요 초청 발표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넷 카 ▲일본 방사선과학연구소개발기구의 마코토 아카시, 오사마 구리하라 ▲캐나다 보건복지부의 춘성리 등이다.

진영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이 방사선 내부 오염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센터로 지정된 이후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zjh@

## 울산시

### CO2 배출권거래제 운영 간담회

울산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환경기초시설 20개소(예기물 4, 하수처리 8, 상수도 8)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방안 ▲배출권 시장 주요 이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지난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종료되고 올해부터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이 시작됐으며 올해는 어느 해보다 온실가스 감축 강도가 강해질 전망이다.

1차 계획기간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배출권을 할당했으나, 올해는 2014~2016년 평균 배출량의 85.18%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총 허용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의 특성별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교류 등 배출권거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시설별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재현 기자



www.mireco.or.kr

##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어울림!

광산개발로 상처받은 자연을 되살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  
그 중심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Mine Reclamation Corp.

주요사업 ■ 광해방지사업 ■ 지역진흥사업 ■ 식염탄 지원사업 ■ 해외광해방지사업 ■ 광해방지기술개발 ■ 국가기술자격검정